

여야 '언론중재법' 정면 충돌

여야 '피해 구제' 25일 본회의 처리 야 '재갈 물리기' 여론전 방어막

여야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놓고 정면충돌할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숙원 법안 중 하나였던 '언론개혁 입법'에 다가섰지만 언론단체뿐만 아니라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언론장악 약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여론은 압도적인 의석수를 기반으로 입법의 마침표를 찍겠다는 입장이어서 야당의 극한 반발이 불가피하다.

지난주 문체위 문턱을 넘어서 언론중재법은 오는 24일 법사위, 25일 본회의까지 일사천리로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원구성 합의로 야당이 일부 상임위원장 자리를 넘기기에 앞서 주요 입법과제를 마무리하겠다는 게 민주당 입장이다. 쟁점 법안 중 유일하게 여야 합의로 상임위 문턱을 넘는

중부세법 개정안도 본회의 표결에 부쳐진다. '부자 감세'라는 당내 강경파의 반발이 거세지만, 지도부는 오히려 '입법독주 프레임'을 불식하고 협치 노력을 강조하는 카드도 중부세법을 부각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민주당은 언론중재법을 '가짜뉴스 피해구제법'으로 규정하고, 가짜뉴스에 의한 피해사례를 집중적으로 알리겠다는 전략이다. 그렇지만 국민의힘과 정의당 등 야권은 물론이거니와 당사자 격인 언론단체들도 강력히 반발하는 상황에서 얼마나 호응을 얻을지는 미지수다.

야권과 언론단체는 '언론 재갈 물리기 법'으로 규정하고 맞불 여론전에 나섰다. 위헌 소지가 있는 독소조항들도 적극적으로 부각하며 추가적인 대응을 예고했다. 김성환 원내수석부대표는 22일 "합리적 대안이 있다면 언제든 수용할 수 있지만, 막무가내 시간끌기로 일관하며 어지간장 놓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눈과 귀를 가린 채 권력자들이 던져주는 부스러기 뉴스만 들으며 노예처럼 살기보다 알 권리를 지키기 위해 목숨 걸고 싸우겠다" (김기현 원내대표)며 결사 항전 의지를 다지고 있다. 그렇지만 현재 의석 구도에서 마땅히 제동 수단이 없다는 게 딜레마다.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카드 역시 180석(재석의원 5분의3) 이상을 확보한 범여권이 언제든 무력화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언론중재법의 부당함을 알리는 여론전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원내 관계자는 통화에서 "협치를 깨고 막가파식으로 법안 처리를 밀어붙이는 여당의 행태를 최대한 알리겠다"면서 "여러 방안으로 끝까지 저지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기현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연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국민의힘, 이번주 선관위 띄우고 비전발표회

국민의힘이 이번주 선거관리위원회를 띄운다. 대선후보 토론회 개최와 경선준비위원회 중립성 논란으로 격한 내홍을 겪은 탓에 순항 여부는 미지수다. 당장은 오는 26일 출범하는 선관위의 지휘봉을 누가 쥐느냐가 관건이다. 경선준비위원장을 맡았던 서병수 의원의 공정성 논란 속에서 전격 물러나면서 선관위원장의 역할론은 더욱 부각된 상황이다.

22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원로급을 중심으로 5~6명의 이름이 허마평에 오른다. 가장 먼저 거론되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백전노장으로 경험이 많다는 게 강점이지만, 정치적 무게감을 고려하면 향후 선대위원장 등으로 합류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2018년 지방선거 이후로 당을 추스렸던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 지난 6·11전당대회 선관위원장을 지낸 황우여 전 대표도 거론된다. 강창희 전 국회의장, 2012년 총선에서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 공천위원장을 지낸 정홍원 전 국무총리의 이름도 나온다. 정병국 전 의원의 이름도 오

르내리지만, 과거 유승민계로 분류됐다는 점에서 이 대표로서는 부담되지 않겠느냐는 얘기가 나온다.

선관위 출범을 하루 앞두고 열리는 비전발표회(25일)에도 시선이 집중된다. 대권 주자가 한자리에 모여 정견을 발표하는 첫 자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토론없이 7분씩 '할 말'만 쏟아내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벌써 맥이 빠진 분위기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출마선언 이후 각종 행보와 정책발표에서 밝힌 구상을 중심으로 정견발표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승민 전 의원은 '가장 잘 준비된 후보'라는 콘셉트 아래 상대적으로 강점이 있다고 자평하는 정책 역량을 부각할 예정이다. 홍준표 의원은 윤 전 총장과 최 전 원장의 준비 부족을 지적하며 풍부한 정치 경험을 토대로 공격적인 메시지를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당내 혼란을 수습하고 미래 비전으로 국민에게 희망을 보이라는 메시지를 준비했다고 한다.

/연합뉴스

권익위, 국민의힘 부동산 조사결과 오늘 발표 '촉각'

이준석 대표 "강하게 대처"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의힘 및 비교섭 정당, 부동산 전수조사' 결과가 23일 발표되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투기 의혹의 규모에 따라 그동안 여론을 겨냥했던 비판 여론이 고스란히 부메랑처럼 돌아올 수 있다는 점에서다. 여론에 비해 재력가가 많다는 통상의 인식에 비춰보면 충격파가 더 클 수 있다.

원내지도부는 권익위로부터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현역 의원들과 개별 면담을 마쳤다. 권익위가 이 가운데 10여명을 부동산 투기 혐의자로 지목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지도부 판단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처분 수위다. 내부적으로는 강한 수위의 징계 조치로 더불어민주당의 '내로남불' 이미지

와 차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준석 대표는 이날 SNS에서 "제가 공언했던 입장을 지키겠다"며 "그것을 기반으로 지도부 다른 구성원의 의견을 참고해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민주당보다 더 강하게 대처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6월 부동산 의혹이 제기된 12명에 대해 '탈당 권유'라는 고강도 결정을 내렸지만, 실질적으로 조치가 진행된 인사는 없다. 비례대표 2명은 제명했지만, 의원직 유지를 위한 '선제적 조치'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역구 의원 10명은 전원 당적을 유지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권익위로부터 전수조사 결과를 전달받기 전에 미리 처분 수위를 결정하고 공개, '엄정한 대처'를 부각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부동산 문제

에 있어서는 야당이 주도권을 가지고 가야 하는 상황"이라며 "민주당처럼 뭉개고 가려고 했다가는, 당내에서부터 큰 반발에 직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의석수다. 소속 의원이 104명이라 '징계 조치'에 따라 개헌저지선(101석)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게 딜레마다. 차기 대권 구도에 미칠 파장도 변수다. 당장 야권의 유력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토지매입 과정에서 통장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는 장모 최모씨를 방어해야 하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권익위 발표가 자칫 윤 전 총장으로 불뭉이 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윤 전 총장 측은 "이번 권익위 조사를 윤 전 총장과 연결 짓는 그 자체가 마타도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5·18희생자 묘소찾은 홍준표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홍준표 의원이 20일 광주 북구 응봉동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희생자 묘소를 참배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준표 "국민의힘 5·18 탄압 세력과 사실상 단절"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홍준표 의원이 지난 20일 당의 불모지인 광주를 찾아 호남 민심 잡기에 나섰다. 국립 5·18 묘지를 참배하고, 5·18 탄압세력과 단절했다는 점도 강조하며 호남 민심에 구애했다.

홍 의원은 이날 국립 5·18 묘지를 찾아 참배한 뒤 "(국민의힘)은 이미 5·18 민주화운동을 탄압했던 세력과 사실상 단절했으며, 당시 폭정과 폭압을 했던 사람들도 당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당에 대한 호남의 인식은 잘 알고 있다"면서 "이제 호남인이 마음을 누그러 뜨려 주셨으면 한다"고 호소했다.

홍 의원은 이날 오후에는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의 유력 대권주자인 더불어민주당

당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국민의힘 윤석열 예비후보를 싸잡아 비판했다. 당내 경쟁 후보인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는 "토론이 겁나고 토론에 자신 없으면 접어야 한다"면서 "토론도 안 하고 나를 추대해달라는 이런 식은 26년 정치했는데 처음 본다"고 비난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서는 "이재명 후보는 포퓰리스트"라며 "국가 채무 1000조 시대가 됐는데, 세계에서 단 한 번도 시도하지 않은 기본 시리즈를 가지고 나와 국가 재정을 망치려고 하고 있다"고 혹평했다.

홍 의원은 호남 대선 공약으로 광주공항과 통합한 무안국제공항을 우리나라 4개 관문 공항 중 하나로 키우겠다고 제시했다. /최원일 기자 cki@

'이준석 저격' 민영삼,尹캠프 합류 나흘 만에 해촉

"유승민 캠프 가라" 비난

윤석열 전 검찰총장 대선 캠프의 민영삼 국민통합특보가 22일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를 비난했다가 특보직에서 사퇴했다.

캠프 공보팀은 이날 오후 언론에 보낸 공지문에서 "민 특보가 사의를 표명해왔고, 캠프가 이를 수용해 특보직에서 해촉됐다"고 설명했다. 국민통합과 외연 확장의 책임자라며 민 특보를 영입한 지 나흘만이다.

민 특보는 이날 오전 SNS에서 이 대표를 향해 "대표 사퇴 후 유승민 캠프로 가서 본인 맘대로 하고 싶은 말 다 하든지 대표직을 유지하며 대선 때까지 묵언수행 하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

다"고 썼다.

이후 언론 보도로 논란이 커지자 해당 글을 삭제한 뒤 "캠프와는 전혀 관계없이 제 개인적인 판단에서 단상을 올린 것"이라는 해명 글을 올렸다.

캠프 관계자는 통화에서 "글 삭제는 캠프 요청에 따른 것이었으며, 사의 표명은 본인 스스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민 특보는 전남 목포 출신으로 정대철 전 새천년민주당 대표의 보좌관과 당 부대변인을 거쳐 민주평화당 최고위원을 역임했으며, 지난해 총선 때 국민의힘의 전신 미래통합당에 합류해 서울 동대문구에 출마했으나 경선에서 이해훈 의원에게 패했다.

/연합뉴스

김동연, 고향 충북 음성서

대선 출마 공식 선언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지난 20일 고향인 충북 음성에서 내년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김 전 부총리는 이날 음성을 행정복지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대선에 출마하겠다"며 "기본 정치권에 순가락 없지 않고 완주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거대 양당이 아닌 새로운 길을 개척하며 출마한 것처럼 소박하게 고향인 음성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하는 것"이라며 "최선을 다해 제 길을 뚜벅뚜벅 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민생이 매우 어렵지만 정치권은 기득권 유지를 위한 싸움만 한다"며 "(주민의) 삶의 전쟁, 정치 전쟁을 끝내기 위해 대선에 출마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꼭! 받아야 할 돈 회수

**판결문, 공중·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 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 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중앙신용정보 직통전화 062)521-4109

010-2860-4700

소상공인 공동브랜드 k.tag 전국100개 인증업체선정

大山 프리모 남녀가발

광주전남 기능장 1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 표창

특수가발 별매 (원터치) 테일 x 핀 x
기능장이 직접 37년 시술. 1만명 이상 내공
매주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

H.M사
등급제품 130만원

59만원~

광주 남구 주월동 1199-12 라인가든아파트 상가 2층(대평여고 옆)

062.673.5858 (모발모발)